

21世纪韩国语系列教材

开始! 시작!



你的面试怎么样了?

GO! GO! GO!

신 편
한국어 쓰기

新编

韩国语写作



金长善 [韩] 李炳一 韩 菁 / 主编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21世纪韩国语系列教材

유니
대학 (910)

신 편
한국어 쓰기

新编 韩国语写作

金长善 [韩] 李炳一 韩 菁 /主编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新编韩国语写作/金长善,(韩)李炳一,韩菁主编. —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16.9

(21世纪韩国语系列教材)

ISBN 978-7-301-27509-2

I. ①新… II. ①金… ②李… ③韩… III. ①朝鲜语—写作—高等学校—教材
IV. ①H55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6)第216370号

- | | |
|-------|--|
| 书 名 | 新编 韩国语写作
XINBIAN HANGUOYU XIEZUO |
| 著作责任者 | 金长善 (韩)李炳一 韩 菁 主编 |
| 责任编辑 | 刘 虹 554992144@qq.com |
| 标准书号 | ISBN 978-7-301-27509-2 |
| 出版发行 | 北京大学出版社 |
| 地 址 | 北京市海淀区成府路205号 100871 |
| 网 址 | http://www.pup.cn 新浪微博:@北京大学出版社 |
| 电子信箱 | zbing@pup.pku.edu.cn |
| 电 话 | 邮购部 62752015 发行部 62750672 编辑部 62754382 |
| 印 刷 者 | 北京富生印刷厂 |
| 经 销 者 | 新华书店 |
| | 787毫米×1092毫米 16开本 13.75印张 380千字 |
| | 2016年9月第1版 2016年9月第1次印刷 |
| 定 价 | 39.00元 |

未经许可,不得以任何方式复制或抄袭本书之部分或全部内容。

版权所有,侵权必究

举报电话: 010-62752024 电子信箱: fd@pup.pku.edu.cn

图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部联系,电话:010-62756370

前言

目前,国内韩语教学方面有关韩语写作的教材很少,能够兼顾到学生实际水平,全面、具体地展开的教材更是少之又少。本教材努力克服以上不足,具备了如下两个特点:

第一,本教材摒弃了单纯传达写作知识的传统教材模式,可作为在实际写作课上的教材兼日常习作的练习册。第二,在传达写作所需知识的同时,改进了“以结果为中心的写作”的传统教材模式,针对各个专题分别说明,之后让学习者做相关部分的练习,是“以过程和策略为中心的写作”。本教材省略了部分传统教材中重视的写作基础,而所必需的部分会让授课教师在课堂上做补充说明。

按照如上宗旨,第1课主要对写作的重要性,第2课主要对自由写作、一分钟写作、每天写作和三种读书法等写作准备过程做了说明。第3到15课主要涉及职业领域、日常生活、书信礼札的写作。本教材中出现的例文主要选自大学生习作、职业领域以及日常生活的典型案例。

习得本教材中所阐述的写作方法,可以解决学习者日常写作中存在的很多问题。本教材收录的大量经典阅读材料、学生习作及本教材层次性的编排都是旨在提高学习者写作能力的同时培养其对社会问题的思辨能力。希望通过对本教材的学习,大家不再认为写作是一件难事,而是一件有趣、有成就感,能够提高综合能力的事情。

最后向为本教材的出版贡献力量的各位同人表示衷心地感谢。非常感谢北京大学出版社的刘虹女士,感谢向本教材提供例文的学生们。

2016年6月

编者

目 录

第1课 写作的重要性	1
제1과 글쓰기의 중요성	
第2课 写作前的准备工作	9
제2과 글쓰기의 사전준비	
第3课 自我推销的计划书(1):个人简介	51
제3과 나를 팔기 위한 마케팅 기획서(1):자기소개서	
第4课 自我推销的计划书(2):简历	85
제4과 나를 팔기 위한 마케팅 기획서(2):이력서	
第5课 报告书	93
제5과 보고서	
第6课 广告	101
제6과 광고문	
第7课 产品使用说明书	111
제7과 제품 사용 설명서:매뉴얼	
第8课 新闻	121
제8과 기사문	
第9课 游记	127
제9과 기행문	
第10课 邀请函和感谢信	141
제10과 초청장과 감사장	
第11课 书信·电子邮件	147
제11과 편지·E-mail	

第12课 学业计划书	163
제12과 학업 계획서	
第13课 推荐信	179
제13과 추천서	
第14课 报告和论文	187
제14과 리포트와 논문	
第15课 演讲	199
제15과 프레젠테이션	

第1课

写作的重要性

제1과 글쓰기의 중요성

1 成功人士的与众不同之处 성공하는 사람에겐 뭔가 다른 게 있다 写作和成功的关系 문장력과 성공의 상관관계

미국 공학교육학회(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에서는 글쓰기와 비교적 관련이 적을 것 같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성공한 엔지니어 245명으로 <문장력과 성공의 상관관계>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업무에서 기술문서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문장력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45%인 110명이 ‘필수적’ 이라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50%인 124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조금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인 9명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245명 중 2명을 제외한 99%는 엔지니어의 업무에서도 글쓰기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이거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표 1 <문장력과 성공의 관계> (성공한 엔지니어 245명 조사)

질문 내용	응답 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본인의 업무에서 문장력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적이다	110	45
	매우 중요하다	124	50
	조금 중요하다	9	4
부하의 문장력을 진급심사에서 어느 정도 고려하십니까?	필수적이다	63	26
	많이 고려한다	153	63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다	25	10

2上班族,65%的工作时间都在做“这个”

직장인, 업무시간 65%는 ‘이것’을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와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공동으로 직장인 1,212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보고서 작성 현황’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로 하루 평균 2회 이상 보고서를 쓰고 있으며, 보고서를 쓰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한번에 2시간 36분 정도였다.

결국 직장인들은 하루 중 약 5시간 12분을 보고서를 쓰는 데 소모하고 하루 일과를 8시간으로 봤을 때 65.0% 가량을 보고서 쓰는 데 보낸다.

上班族平均一天花费5小时12分钟写报告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5시간 12분을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보낸다

보고서를 쓰는 데 남성이 2.1회로 여성 1.9회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았고, 과장급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이 192분(3시간 12분)으로 가장 오래 동안 정성을 들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 작업은 학창 시절 한번쯤 작문의 스트레스를 겪어 본 직장인들이 졸업 후 또 다시 만나게 되는 매일 매일의 악몽의 시간이었다. ‘보고서 작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62.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스트레스 수준도 ‘매우 많이 받는다’(11.7%), ‘다소 많이 받는다’(55.0%) 등 66.7%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나눠 보면 보고서에 가장 오래 동안 공을 들이는 과장급이 스트레스도 제일 많이 받고 있었다. ‘과장급’이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은 전체 평균 62.3%를 훨씬 넘는 70.3%였고, ‘차장급’도 68.2%로 과장급에 뒤지지 않는 비율이었다. 그 뒤를 이어 ‘사원급’(61.5%), ‘대리급’(59.0%), ‘부장급’(58.9%), ‘임원급’(55.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보고서 작성에서 제일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으로 ‘내용 구성과 양식 꾸미기(34.3%)’가 첫 손에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글솜씨와 문장력(25.4%)’과 ‘압축해서 표현하는 스킬(22.4%)’이 뒤를 이었고, ‘보고 타이밍 잡기(9.3%)’와 ‘오탈자 없이 작성하기(6.1%)’ ‘기타(2.5%)’ 등의 의견이었다.

보고서 쓰기와 능력은 직장인들의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직장에서의 성공과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보고서 작성능력과 직장 내 성공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매우 큰 상관관계’ (18.9%) ‘다소 큰 상관관계’ (58.8%) 등 77.7%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각종 보고와 보고서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오늘도 평균 5시간 12분 동안 쓰고 있다

3 写作能力是成功的捷径: 哈佛, 麻省理工, 斯坦福毕业的领导者的成功要诀

글쓰기 능력은 성공의 지름길: 하버드, MIT, 스탠포드 출신 리더들의 성공요인

세계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면 명문대 출신 리더들이 꼽는 성공의 요인은 무엇일까?

세계적인 리더를 많이 배출한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중 사회적인 리더로 활동하는 인사들에게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들의 가장 많은 대답은 다름 아닌 <글 쓰는 능력>이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었던 학력이나 인맥보다도 <글 쓰는 능력>이 성공의 요인에 크게 작용했다고 대답했다.

명문대를 나온다는 것은 성공에 보다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

사회적 리더라면 아무래도 글을 쓸 기회도 많고, 글 쓰는 일이 많이 필요하니,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 리더와는 연관성이 멀고, 글쓰는 일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글쓰기 능력, 페이퍼 파워(paper power)가 성공의 요인이었다.

같은 대상에게 ‘진급심사 시에 부하직원의 문장력을 어느 정도 고려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필수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이 25%, ‘많이 고려한다’는 응답이 63%, ‘조금 고려한다’는 응답이 10% 였다. 엔지니어가 기술개발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문서작성도 잘해야 하냐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

다면 그 사람은 글 쓰는 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모르는 바보일 것이다.

글 쓰기 능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보통 글 쓰는 일을 ‘문학’이나 ‘작가들의 일’ 또는 ‘문과생들의 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학에서의 글쓰기 수업이 교과과정으로 편성되기 시작했고, 직장인들도 비즈니스 라이팅(business writing/商务写作)이라고 해서 업무적인 글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변화이다. 하지만 글쓰기 능력은 아주 오래 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 중의 하나였다.

당나라시대나 한국의 조선시대의 인재등용 기준으로 ‘신언서판(身言書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글 쓰는 능력이었다. 대학입학을 목표로 한 확일화된 주입식, 암기식 교육방식을 고집해 오다 보니 교육 현장은 상대적으로 글쓰기를 소홀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글 쓰는 능력은 보통 수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글쓰기 능력은 백일장 대회나 학교 작문 숙제를 위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할 때 준비하는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그리고 논술 시험에서도 필요하다. 해외유학을 갈 때도 에세이를 쓰거나, 로스쿨(law school, 法律院)이나 취업을 할 때도 에세이나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한다.

어떤 방식의 글쓰기이든지 뭔가의 페이지는 우리에게 기회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경력직 회사로 이직을 꿈꾸는 사람은 회사에 대한 분석보고서나 신규사업 제안서를 준비한다. 회사 내에서는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이나 회사를 위해 좋은 제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주고 있다.

회사의 대부분의 일은 글쓰기와 관련된 일이다. 문서로 일을 시작하고 문서로 하루 일과를 끝낸다. 정부의 일도, 행정 업무도, 법정에서도 문서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다. 방송도, 뉴스도 그렇다. 좋은 글이 없으면 좋은 드라마나 뉴스의 앵커도 없고, 좋은 배우도 없다. 앵커의 멘트도 배우의 멋진 대사도, 가수의 노랫말도 쓰여진 글에 의해 평가되고 결정된다. 만약 사회적인 글쓰기가 부실해지면 신문도 방송도 부실해지고, 사업도, 정부의 행정도, 사법부의 재판도 부실해 질 수 있다.

하버드를 비롯해 MIT, 스탠포드Stanford University 등 미국의 명문대학에서는 신입생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명문대

는 물론이고 국내외 많은 대학에서도 글쓰기는 필수 교과 커리큘럼(curriculum/课程)에 포함되어 있다. 비즈니스 라이팅부터 글쓰기, 쓰기에 대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관련 강좌도 많이 개설되고 있다. 기업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글쓰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머니투데이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

[[2030 성공습관] 글쓰기 능력은 성공의 지름길] 채수정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글쓰기 능력을 키워라.

글쓰기 능력과 사회적 성공은 아주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글 쓰는 능력 자체가 성공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질이자 습관이다.

성공하는 사람에겐 ‘페이퍼 파워(paper power; 纸功率)’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에겐 뭔가 다른 게 있다.’ 말을 잘해야 한다든가, 인맥이 중요하다든가, 나름대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에겐 페이퍼 파워가 있다.

페이퍼 파워란 글쓰기 능력을 말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자 이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페이퍼 파워이다.

페이퍼 파워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글쓰기 능력은 필요하다. 글쓰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엔지니어에게조차 글쓰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 진학을 할 때나 해외 유학이나 대학원에 갈 때도 글쓰기는 필요하다. 학생이나 직장인은 물론 학자, 저술가, 정치인,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페이퍼 파워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중 개인의 저서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41%나 된다고 한다.

글쓰기에 성공하려면 먼저 부지런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무려 492권이나 되는 방대한 저서를 남긴 인물이다. 그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 수집과 다독, 그리고 수집된 정보와 독서에서 얻은 지식에 대한 분석·분류 및 정리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었다.

4 写作的伦理性 글쓰기의 윤리성

글을 한 번이라도 써 본 사람이면 글쓰기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공감할 것이다. 글쓰기가 주는 스트레스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 그런데 유명한 소설가나 작곡가가 공들여서 완성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복사하고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 소설가나 작곡가는 다시는 힘들고 고된 창작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감동적인 소설을 읽을 기회가 사라지고, 다양하고 감미로운 음악이나 멜로디를 접하는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풍부한 정신적 감수성이 메말라 버리고 각박한 세상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지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copyright; 著作権)>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창조적 행위를 법으로 일일이 보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성숙한 저작권 의식이 우선이다.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얼마든지 발췌(拔萃)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剽窃, plagiarism, 글 도둑질)하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과제를 몰래 베끼는 일부터 좋은 문장이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옮기는 행위, 심지어 지성인으로 불리는 학자들의 비양심적인 재편집, 바꿔치기, 짜깁기 등의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표절은 라틴어의 ‘유괴(誘拐 to kidnap)’에서 온 말이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끌어다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으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겉으로 표시가 잘 드러나지 않기에 우리는 표절에 대한 윤리의식이 희박한 실정이다. 혹시라도 표절의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모르고 한 일이거나 가벼운 실수라고 돌려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이냐 창작이냐’의 논쟁은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글쓰기의 발달로 인한 그 경계점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표절이냐 표절이 아니냐”의 근거는 원 텍스트(text)에 상

당 부분을 의존해 있는가 아니면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완전히 재구성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해서 <표절과 표절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 세상의 많은 생각과 좋은 구절들은 이미 누군가가 말해 놓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도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게 모르게 어떤 책이나 어느 블로그에서 보았던 경우가 종종 있



을 것이다. 그런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썼을 때 아무도 그 글을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책이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표절은 아니다. 표절이 의도적으로 남의 글을 베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누구의 책이나 사상을 읽고 그 기본 생각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은 표절이 아니다.

표절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인용’이다. 인용의 기본 원칙은 잘 안다면 ‘이 부분은 표절이다, 표절이 아니다’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긴 인용문일 경우에는 별도의 단락으로 처리하고 짧은 인용문일 경우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로 인용문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인용문에는 저자와 책이름을 항상 주석 등으로 명기해 주어야 한다. 글쓰기 교육의 목표가 논리적, 창의적 능력을 배양하고, 성숙한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표절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글쓰기를 배우는 학생들은 글쓰기의 출발을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한 경외와 존중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第2课

写作前的准备工作

제2과 글쓰기의 사전준비

학생이나 직장인은 물론 학자, 저술가, 정치인,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글쓰기는 이미 삶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전문직 직장인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중 적어도 3분의 1은 ‘쓰기, 편집,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 쓰기와 관련된 일을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할수록 그 비율은 더욱 늘어나 중간관리자급이 되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40%를, 그리고 매니저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50%를 글쓰기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보낸다. 이제 글쓰기는 직장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며 승진과 경쟁력의 중요한 열쇠로 자리잡고 있다.

1 怎样写出好的文章 좋은 글쓰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다면 좋은 글쓰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전통적인 글쓰기의 방법으로 삼다(三多)와 삼상(三上)이 있다. 삼다(三多)는 다독(多读), 다작(多作), 다사(多思)이며, 삼상(三上)은 마상(马上), 침상(枕上), 측상(廁上)이다.

글을 잘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

다독(多读):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

다작(多作): 자주 많이 써 보고 고친다

다사(多思): 좋고 기발하고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 본다



좋은 생각이 잘 떠오르는 장소는 어디일까?

마상(馬上): 좋은 여행길에서 좋은 생각이 잘 떠오른다. 너무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고속 열차가 아니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천천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기차나 선박을 이용한 여행길, 산책 등은 추천할 만한 마상에 해당된다.

침상(枕上): 밤에 이부자리에 누워 베개를 베고 잠이 들기 전이나 아침에 잠을 막 깨었을 때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누구나 다 체험한 바 있다. 출근 준비에 바쁜 아침보다는 잠들기 30분 전이 좋은 생각이 잘 떠오르는 시간이다.

측상(廁上):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엉뚱하고 기발하고 참신한 생각이 잘 떠오른다. 화장실은 유일하게 나 혼자서 명상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성공한 사업가는 “성공을 위해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책을 읽습니다.”라고 했다. 성공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나에게 끈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성공을 위해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한다.

자주 써야 한다.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2 自由写作 자유작문(Free Writing)

一分钟作文 1분 동안의 글쓰기

자유작문은 글쓰기의 가장 초보적 단계이며 글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 단계이다.

인디애나 대학(Indiana University)의 데이비드 하트웰(David G. Hartwell) 교수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쓰기의 두 가지 원리를 제안하였다.

긴장을 풀어라. 放松

무조건 쓰는 훈련을 하라. 写作训练

즉 긴장을 풀라는 것과 마음속으로 예상연습을 하면서 무조건 쓰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다.

‘나는 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 혹은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열등감, ‘어떻게 하면 내가 쓴 글이 훌륭한 명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멋진 글을 써야지’라는 지나친 야심은 글쓰기를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자유성을 해소하면 글을 쓰는 데 자유로워진다.

자유작문의 중요한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끝나 버리기 전에는 무슨 일이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Marcus Tullius Cicero, 马库斯·图留斯·西塞罗)